

스스로 우리의 낙농 터전을 보호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감사한 기회에 일일 농림부 장관으로 짧은 하루나마 나라 농업 살림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는 옛날 새마을운동 같은 정부가 선두에서는 시기는 지났고, 농업인 스

스로 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할 때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은 다시 시작하는데 훈련되어 있다. 폭설로 인해 내려앉은 축사를 새로 일으켰고, 폭우로 유실된 조사료포를 다시 일구었고, 소가 난산으로 죽으면 다시

송아지를 키워왔다.

꿈에 그리던 선진국의 발판은 제일 힘든 이 시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역사가 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낙농 일세대가 되자. ☺

심각한 낙농현안과 낙농자조금



우충식

해태유업 자조금 추진위원

세상은 이렇게 변할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소득 일만불시대를 요란하게 강조하며 OECD가입을 개선장군의 기세로 자랑하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불과 수개월만에 숨소리마저 맘대로 내기가 두려운 살인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IMF체제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위기적 현실은 그동안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에 일조를 담당했던 우리 낙농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타업종에 비하여 더욱 심한 충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나버린 좋은 날의 추억만 더듬거리며 현실을 한탄해서는 안된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난국을 정면으로 맞아 싸워야하며 기필코 승리를 연출해 내야 한다.

그것만이 낙농산업의 전면적인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애국 충정의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낙농자조금 제도의 시행은 참으로 획기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에 본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맘으로 몇가지 사견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건전하고 단단하게

“

모든일은 말과 계획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낙농인의 문제는 낙농인에 의하여 낙농인의 힘으로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자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 한다.

”

등쳐야 한다.

현재 일부 유업체에서 수개월분의 유대를 체불하는 등 낙농인의 도산을 부채질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에 집유선 동결조치 등으로 일부 낙농가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강요한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대책입안을 기피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인 간의 민사적 문제로 치부하여 결과적으로 유업체의 옳지 못한 부채를 IMF의 파동으로 피명된 영세낙농농가에게 갖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의도를 정녕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합리적이

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않는, 이미 범위가 설정된 일부낙농인의 도태로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진정한 자율경쟁체제의 확립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단합을 이룰수 없다. 이에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정부와 낙농에 관련된 단체와 협회는 집안의 아흔아홉마리의 양보다 밖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데 온힘을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낙농산업의 합리적발전을 이룩해 낼수 있다.

둘째 모든 낙농인이 적극적인 자

세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일은 말과 계획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낙농인의 문제는 낙농인에 의하여 낙농인의 힘으로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자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 한다.

셋째 운영진은 건강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은 많은 시련을 경험해 왔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지극히 소수 지도자들의 공명심과 이

기심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 그들은 자조금 운영에도 끈지않은 눈길을 던질 것이 뻔하다.

이에 진정으로 성공적인 자조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한치라도 의심의 여백을 남겨서는 안되며 수시로 낙농인에게 사업내용을 의논하고 명확한 결과를 공개하여 완벽한 믿음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위기상황에 봉착된 우리 낙농산업이 자조금 제도의 힘찬 운영에 힘입어 명쾌하게 회생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다. ☺

낙농자조금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자



우용제

충북 자조금 추진위원

“

현재의 낙농업을 지키는 데는 우리 낙농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낙농가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때도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이란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의 불황을 헤쳐나갈 방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작년에는 사상 최악의 IMF 한파로 막심한 피해를 입히더니 그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사상 유례없는 수마가 온 나라를 할퀴고 지나가 이종고를 꺾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과거 생산에만 전념하던 낙농가가 이제는 소비에까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시점에 도달 하였다.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의한 축산물의 소비증대에 힘입어 거시적인 발전을 했으나 최근 지나친 유희소비위축으로 쌓여만가는 분유 적체가 파산지경으로 치달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지난 5월11일 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부의 강력한 원유가 인하방침을 유보시키기 위해 최소 접근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원유가 30여원을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kg당 5원씩 자조금을 지출하여 낙농가의 활로모색을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며 거부할 수